

# 광양시 '일자리 플랫폼' 5월 선보인다

### 1억9800만원 들여 구축 용역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 개인·지역별 맞춤형 정보 제공

광양시가 자체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과 구직자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

광양시는 오는 5월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는 1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 12일에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만권HRD센터장과 광양청년꿈터 센터장,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상임이사, 관련 전문가, 관계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 방안과 관리계획,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

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광양시 희망일자리센터 누리집이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연동돼 운영됐다.

이 누리집은 지역별·직종별 채용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전달과 편의성 부족이 지적돼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될 플랫폼에는 민간 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일자리, 개인 사업체와 아르바이트까지 광양시 내 모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광양시의 지원사업을 포함한 취·창업 정보라도 신설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역 일자리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구인 기업과 개인 사업체의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영상을 선보인다.

구직자가 이력서만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내세울 수 있도록 자기소개 영상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일자리 지도'를 만들어 기업 정보와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세부 검색을 지원

한다.

세부 분류는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성별 ▲나이별 ▲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별 ▲서비스업, 제조업 등 업종별로 나뉜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단계별 사용 예시도 선보일 예정이다.

광양시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 유형을 분석해 '일자리 통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광양지역 15~64세 고용률은 70.9%였으며, 만 15세 이상의 소비 인구 가운데 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은 흩어져 있던 일자리 정보들을 통합해 시간을 아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15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여수지역 시민단체 등이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하라”

### 여수시민사회단체 촉구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예술·교육·장애인단체 등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여수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이 뉴라이트 등 인사들로 구성된 것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순사건 유족들은 여순사건위원회와 국회를 찾아가 정부의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이 편파적이라고 항의한 바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와 순천시체육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통장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공동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면서 “기획단의 구성이 매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의원들도 최근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여순사건 소위원회 위원 5명이 지난 11일 입성문을 내고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기획단 인사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기획단 구성 절차도 규정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 '초인등' 지원 난청고령자까지 확대

고흥군은 올해 무선 초인등 지원사업 대상을 청력이 약한 고령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초인등'은 초인종과 경광등을 합쳐 만들어진 단어이다.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집안의 수신기에 LED 조명 불빛으로 방문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화재 등 위급상황에 안전을 위한 재난 알림 역할을 한다.

고흥군은 민선 8기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125명의 청각 장애인에게 '초인등'을 무상

지원했다.

올해는 난청 고령자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고흥군은 초인등 유지 보수 관리도 발의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등록 장애인 7049명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장애인금·장애수당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

강춘수 고흥군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낙준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은 복지 정책을 강화한 '복지 600'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열린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복지공감 페스티벌. (보성군 제공)

## 보성군, 600개 마을 빠짐없는 '복지600' 시책 시동

### 일자리 사업·돌봄서비스 등 강화

보성군이 600개 마을 곳곳에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복지 600' 사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 600사업'과 연계한 '보성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올해 3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보성600사업의 확장형인 '클린600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불 빨래 세탁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통신(IT) 장비를 활용한 돌봄도 펼친다. 응급상황 발생 때 대처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1727대를 설치 보급한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인공지능(AI) 돌봄로

봇은 지난해 전남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0대를 추가 보급해 총 90대를 운영한다. 경로당에는 탁자·의자 꾸러미를 지원하고 등록경로당 450여 곳에 대해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보장한다.

경로당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K-디지털 체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각 경로당에서 운영한다.

35세~65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에게 '경력 이음 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하고 취·창업교육, 일자리 상담을 통해 연간 1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문화 문화축제'와 '청소년문화축제'를 열어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이 지역민과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올해는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육 공백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 0~1세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는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르신 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복지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순천시 우수 녹색아파트 선정 온실가스 감축

### 10월까지 쓰레기 감축 등 평가

순천시가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 참여를 위해 우수녹색아파트를 선정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다.

우수 녹색아파트는 관내 100세대 이상 144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축률과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률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최저가입률 초과 부분에 대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온실가스 최다 감축 아파트 10개소는 순위에 따라 최우수 1개소에 600만원, 우수 2개소에 각 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아파트 내 공동시설의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후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에너지 절약, 대자보 실천 등 일류순천의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생활 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